

유란시아서

<< [제 180 편](#) | [부분](#) | [내용](#) | [제 182 편](#) >>

제 181 편

마지막 훈계와 경고

181:0.1 (1953.1) 열한 사도에게 작별의 강연을 마치고 나서, **예수**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단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그들의 관심을 끄는 여러 체험을 이야기했다. 친구인 선생이 그들을 떠나려 한다는 생각이 마침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분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조금 있으면 그가 다시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다시 오시는 일이 또한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렸다. 사도와 주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잠시 동안 (부활과 승천 사이의 짧은 기간에) 돌아온다는 이 약속이 **예수**가 **아버지**를 잠깐 찾아보려고 방금 떠나고 그 뒤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돌아올 것을 가리킨다고 정말로 생각했다. 그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선입관, 그리고 간절히 품었던 희망, 이 두 가지와도 일치했다. 그들이 일생동안 지녔던 관념, 그리고 욕구가 성취되는 희망이 이렇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들의 뜨거운 열망(熱望)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181:0.2 (1953.2) 작별의 강연을 논의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머리 속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뒤에, **예수**는 사도들을 조용하게 하고 마지막 훈계와

경고를 말씀하기 시작했다.

1. 마지막 위안의 말씀

181:1.1 (1953.3) 열한 사도가 제 자리에 앉고 나서, **예수**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육체를 입고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 가운데서나 온 세계에서 나는 오직 한 개인일 수밖에 없노라. 그러나 필사 성질을 지닌 이 옷에서 해방되었을 때, 나는 너희 각자에게,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을 믿는 모든 다른 사람 속에, 영으로 깃드는 자로서 돌아올 수 있노라. 이 방법으로 **사람의 아들**은 모든 참된 신자의 혼 속에서 영적 육신화가 되리라.

181:1.2 (1953.4) “내가 너희 안에 살고 너희를 통하여 일하려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생명을 통하여 계속 너희를 더욱 잘 인도할 수 있고, 가장 높은 하늘에서 미래에 여러 거처를 통하여 너희를 안내할 수 있노라. **아버지**의 영원한 창조에서 사는 것은 끊임없이 게으름 피우는 휴식과 이기적 편안을 즐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품위와 진실과 영광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집에 많고 많은 정거장 하나하나가 멈추는 장소요, 앞에 있는 다음 생명을 위하여 너희를 준비시키려고 고안된 생명이라. 그래서 빛의 아이들은 줄곧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리저리 가서 신의 토지에 이르리니, 거기서 **아버지**가 모든 일에 완전한 것 같이 저희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되리라.

181:1.3 (1953.5)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내 가르침의 정신과 내 일생의 이상에 따라서 살려고 —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 아주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라. 이를 행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살도록 요구된 것과 같은 일생, 육체를 입은 자연스러운 내 일생을 모방하려고 애쓰지 말라.

181:1.4 (1954.1) “**아버지**는 나를 이 세상으로 보냈지만 겨우 너희 몇 사람이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선택하였느니라. 나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쏟아 붓겠으나, 모든 사람이 이 새 선생을 혼의 안내자와 조언자로 받아들이기를 택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깨우침을 받고 깨끗해지고 위로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진실의 영**은 저희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물이 솟는 샘이 되리라.

181:1.5 (1954.2)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려 하매, 위로의 말을 하고자 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하는 것처럼 — 재서 — 이 선물을 주지 않고 너희가 받아들일 만큼 모두, 각자에게 주리라.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 모두가 이기리라. **사람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리라 너희에게 경고했으나 너희에게 보장하노니,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잠깐이 될지라도 내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 뒤에, 너희와 함께 있고 바로 너희 마음 속에서 거할 새 선생을 내가 분명히 보내리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절망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미리 알았으므로 오히려 믿으라. 내가 큰 애정으로 너희를 사랑했고, 나는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으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내 때가 왔노라.

181:1.6 (1954.3) “너희가 박해를 받고서 널리 흩어지고 많은 슬픈 일로 낙심한 뒤에도, 이 진실 가운데 어느 것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제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의 아들**을 적들의 손에 버려둘 때 너희가 내 고독(孤獨)을 알리니, 그와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혼자임을

느낄 때 내가 너희의 고독을 알리라. 그러나 나는 결코 혼자 있지 않고, 언제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한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너희가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더욱 풍부히 가지도록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일렀노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시련을 겪겠으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였고, 영원한 기쁨과 영구한 봉사로 이끄는 길을 너희에게 보였음이라.”

181:1.7 (1954.4)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료 일꾼들에게 평화를 주지만, 이것은 이 물질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 같은 종류의 평화가 아니다. 믿지 않는 유물론자와 운명론자는 오직 두 가지의 평화와 혼의 위로를 얻기를 바랄 수 있다. 그들은 불가피한 것을 부닥치거나 최악을 견디겠다고 굳게 각오한 금욕주의자이든지, 아니면 낙천가가 되어서, 결코 정말로 오지 않는 평화를 헛되이 동경하면서, 인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희망을 늘 품어야 한다.**

181:1.8 (1954.5) 땅에서 사는 데는 얼마큼의 금욕주의와 낙관주의가 쓸모 있지만, 이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은 형제들에게 주는 숭고한 평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미가엘**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평화는, 자신이 육체를 입고 바로 이 세상에서 필사 생명을 살았을 때 자신의 혼을 채웠던 바로 그 평화이다. **예수**의 평화는, 육체를 입고 필사 생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충분히 배우는 데 성공한 개인, **하나님**을 아는 개인이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다. **예수**의 정신이 지녔던 평화는 신성한 **아버지**가 슬기롭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보살피는 것이 사실임을 절대로 믿는, 인간의 신앙에 기초를 두었다. **예수**는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이 그를 그릇되게 “슬픈 사람”이라고 일컫기까지 했지만, 이

모든 체험 속에서, 이를 통하여,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일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늘 힘을 준, 그러한 자신감으로 위로받았다.

181:1.9 (1954.6) **예수**는 각오가 굳었고 끈질겼으며, 그의 사명을 이룩하는데 속속들이 헌신했지만, 감정이 무디고 살갗이 굳어진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생의 체험에서 즐거운 모습을 늘 찾으려 했지만, 눈이 멀고 스스로 속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었다. 주는 그에게 무슨 일이 쏟아질까 모두 알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따르는 사람 각자에게 이 평화를 준 뒤에, 그는 변함없이 말할 수 있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81:1.10 (1955.1) 그러면 **예수**의 평화는,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자기의 생애가, 전적으로 슬기롭고 만물을 사랑하는 전능한 영 **아버지**의 보살핌과 보호를 안전히, 온전히 받고 있음을 완전히 믿는 아들이 가지는 평화와 확신이다. 이것은 정말로, 필사인의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이지만, 믿는 인간의 가슴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평화이다.

2. 개인적으로 주신 작별의 훈계

181:2.1 (1955.2) 주는 사도들에게 한 집단으로서 작별의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 훈계의 말씀을 나눠주었다. 다음에 그는 각 개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작별의 축복과 함께,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말씀을 주었다. 그들은 마지막 만찬을 들려고 처음에 앉았을 때 그대로, 식탁 주위에 아직도 앉아 있었고, 주가 식탁을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가 이야기할 때 각 사람이 일어섰다.

181:2.2 (1955.3) **요한**에게 **예수**는 말했다: “**요한**아, 너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리니라. 너는 나와 아주 가까이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 모두를 사랑하지만, 나와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 세 사람 중의 하나로 **안드레**가 너를 지명하였느니라. 이밖에도, 너는 나를 대신하여 행동했고, 땅에서 내 가족에 관한 여러 문제에서 계속 그렇게 행동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요한**아, 육체로서 나에게 속하는 자들을 네가 계속 보살필 것이라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 사명에 대하여 저희가 현재 혼동해도, 내가 육체로 남아 있다면 내가 어찌 하리라 생각되는 대로, 어떤 면에서도 네가 저희에게 계속하여 모든 동정과 조언과 도움을 베풀도록 처리하여라. 저희가 모두 와서 빛을 보고 하늘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때 너희 모두가 저희를 기쁘게 환영하는 동안에, **요한**아, 나를 위하여 네가 저희를 환영할 줄을 믿노라.

181:2.3 (1955.4) “이제, 땅에서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 가족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전할 말이라도 남기도록 옆에 가까이 남아 있으라.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긴 일에 관하여 말하면, 육체를 입고 죽는 것 외에 이제 다 이루었고, 나는 이 마지막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노라. 그러나 땅에서 내 아버지 **요셉**이 내게 맡겨준 책임에 관하여, 내 일생 동안에 이것들을 수행하였으나 이제 이 모든 문제에 네가 나 대신에 행동하기를 기대하노라. 내 대신에 이를 하라고 너를 택하였으니, **요한**아 네가 가장 나이 어리고, 따라서 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기 때문이라.

181:2.4 (1955.5) “한때 나는 너와 네 형을 우리의 아들이라 불렀노라. 너는 고집이 세고 참을성 없이 우리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디었어도, 무지(無知)하고 경솔한 불신자들 머리 위에 내가 불을 퍼붓기를 네가 바란 이후로, 너는 많이 바뀌었느니라. 그리고 아직도 더 바뀌어야

하느니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오늘 밤에 준 새 계명을 지키는 사도가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가르치는 데 일생을 바치라.”

181:2.5 (1955.6) 눈물 방울이 주르르 뺨으로 굴러 떨어지며 2층 방에서 거기 서 있는 동안, **요한 세베대**는 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 주여, 그렇게 하리이다. 그러나 어떻게 내 형제들을 더 사랑하기를 배울 수 있나이까?” 다음에 **예수**가 대답했다: “네가 먼저 하늘에 계신 저희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기를 배울 때, 그리고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저희의 복지에 네가 참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뒤에, 너는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배우리라. 살피는 동정심, 사심 없는 봉사, 아낌없는 용서가 그런 모든 인간적 관심을 촉진하느니라. 아무도 젊다고 너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지만, 나이가 때로는 경험을 대표하며 인간사에서 아무것도 실제 체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땅히 고려하라, 언제나 너에게 타이르노라. 모든 사람과, 더군다나 하늘나라 형제 단체의 네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라. **요한아**, 하늘나라를 위하여 네가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181:2.6 (1956.1) 다음에, 자기 자리를 돌아서 지나가면서, 주는 **가롯 유다**의 자리 옆에서 한 순간 멈추었다. 사도들은 **유다**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돌아오지 않은 것에 오히려 놀랐고, **예수**가 그 배반자의 빈 자리 옆에 서 있는 동안, **예수**의 슬픈 얼굴빛이 무슨 의미인가 매우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마 **안드레**를 빼고, **예수**가 초저녁에, 또 저녁 식사 동안에 그들에게 비춘 바와 같이, 그들 가운데 아무도 회계(會計)가 주를 배반하려고 나간 것을 티끌만큼도 눈치채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들 중에 하나가 주를 저버릴 것이라고 주가 이르신 것을 한동안 아주 잊어버렸다.

181:2.7 (1956.2) **예수**는 이제 열심당원 **시몬**에게 건너갔고, 그는 일어서서 이 훈계에 귀를 기울였다: “너는 **아브라함**의 참 아들이지만, 너를 이 하늘나라의 아들로 만들려고 애쓰면서 내가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형제 모두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또한 하늘나라를 사랑함을 내가 알지만, 너는 아직도 네 취향(趣向)대로 이 하늘나라가 오게 만들려고 마음이 굳었느니라. 네가 궁극에 내 복음의 영적 성질과 의미를 깨닫고, 네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용감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떠날 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노라. 네가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네가 내 사도가 되기를 그만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대사(大使)로서 네가 적절히 처신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기쁘게 되리라.”

181:2.8 (1956.3) **예수**가 열심당원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자마자, 불 같은 애국자는 젖은 눈을 닦으면서 대답했다: “주여, 내가 충성할까 걱정하지 마소서.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내 일생을 바치도록 내가 모든 일에 등을 돌렸고,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이제까지 온갖 실망을 견디었고,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리이다.”

181:2.9 (1956.4) 다음에 **시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예수**는 말했다: “특히 이와 같은 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로 마음이 시원하구나. 그러나 착한 친구여,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는 아직도 모르느니라. 한 순간이라도 나는 너의 충성, 너의 헌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고, 이 모든 다른 사람처럼, 네가 서슴지 않고 싸움터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을 내가 아노라”(그들은 모두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요구되지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내 제자들은 그 나라를 세우려고 싸우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일렀노라. **시몬**아, 이것을 여러 번 너희에게 일렀으나, 너는 진실을 마주보려 하지 않느니라. 나에 대하여, 또 하늘나라에 대하여, 네가 충성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 때, 그리고 네가 내 가르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과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영적 체제 사무를 다루는 현실에 너의 그릇된 생각을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네가 마침내 깨닫게 될 때, 너는 어찌하려느냐?”

181:2.10 (1956.5) **시몬**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는 손을 들어 그를 막고서, 말을 이었다: “내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마음 속에 너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나, 내가 떠난 뒤에 아무도 너보다 더 속이 뒤집히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리라. 네가 어떤 실망에 빠졌더라도 내 영이 너와 함께 거하겠고, 이들, 너의 형제들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가진 시민권과 **아버지**의 영적 국가에서 아들 신분, 이 둘의 관계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잊지 말라. **케자**의 것을 **케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라. **시몬**아, 국가 권력에 대한 현세의 의무, 그리고 하늘나라의 형제 단체에서 영적 봉사를 동시에 인식하는 것에 관한 나의 권고를 필사 인간이 어떻게 적절히 따를 수 있는가 보여주는 데 너의 일생을 바치라. 네가 **진실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면, 현세의 통치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존경과 섬김을 주제넘게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 한, 땅에서 시민이 되고 하늘에서 아들이 되는 요건 사이에 결코 아무런 갈등이 없으리라.

181:2.11 (1957.1) “이제 **시몬**아, 네가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너의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큰 권능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떠나간

뒤에, 네가 낙심하는 시절을 통해서도 내내,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최후까지 너와 함께 계속할 것을 결코 잊지 말라. 너는 언제나 내 사도가 되겠고, 기꺼이 네가 영의 눈으로 보고 너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충만히 굴복하게 된 뒤에, 그때 너는 내 대사로서 수고하러 돌아오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진실을 더디게 알아듣는다고 해서, 너에게 수여한 권한을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시몬**아, 한 번 더 너에게 경고하노니, 칼로 싸우는 자는 칼로 망해도, 영적으로 수고하는 자는 지금 있는 나라에서 기쁨과 평화를 가질 뿐 아니라 다가오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느니라. 네 손에 맡겨진 일이 땅에서 끝났을 때, **시몬**아, 너는 저기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앉을지니라. 몹시 바라던 하늘나라를 네가 정말로 보겠으나, 이 생명에서는 아니라. 줄곧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드러낸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영생의 선물을 받으리라.”

181:2.12 (1957.2) 열심당원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는 **마태 레위**에게 걸어가서 말했다: “사도 집단의 기금(基金)을 마련하는 일이 이제 더 너에게 맡겨지지 아니하리라. 당장, 아주 곧 너희는 모두 흩어지겠고, 너희 형제 가운데 겨우 한 사람하고도 위로하고 받들어주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리라. 이 하늘나라 복음을 너희가 전파하려고 앞으로 가는 동안에,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새 동료들을 찾아야 하리라. 너희가 훈련받는 동안에 나는 둘씩 너희를 보냈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므로, 너희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린 뒤에, 이 좋은 소식, 믿음으로 활력을 얻은 필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너는 혼자 밖으로, 땅 끝까지라도 가리라.”

181:2.13 (1957.3)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그러나 주여, 누가 우리를 보내고,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찌 알리이까? **안드레**가 우리의 길을 보일 것이니이까?” **예수**는 대답했다: “아니라, **레위**야,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안드레**는 이제 더 너희를 지도하지 않으리라. 새 선생이 오는 그날까지, 정말로 그는 너희의 친구요 조언자로서 계속하리라. 다음에 **진실의 영**이 하늘나라를 펼치는 일에 수고하라고 너희 하나하나를 바깥으로 이끌리라. 세관에서 처음에 나를 따르려고 나선 그날 이후로, 많은 변화가 너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친교(親交)하는 관계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나란히 앉는 형제 단체의 환상을 네가 볼 수 있기 전에, 많은 변화가 더 와야 하느니라. 그러나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네 **유대인** 형제들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 일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힘차게 이방인에게 방향을 돌리라. **레위**야, 너는 한 가지를 분명히 믿어도 좋으니라: 너는 형제들의 신임과 애정을 얻었고, 저희가 다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모두 열 명이 주의 말씀에 말없이, 승인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181:2.14 (1958.1) “**레위**야, 금고를 채우느라 네가 걱정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네 형제들이 모르는 많은 것을 내가 아노라. 돈자루를 가지고 다니는 자가 자리에 없어도, 하늘나라 사자들과 함께 내 작별 모임에 세리(稅吏)인 대사가 여기 있으니 내가 기쁘도다. 영(靈)의 눈으로 내 가르침의 뜻을 네가 헤아리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새 선생이 네 마음 속에 올 때, 그가 인도하는 대로 계속 따르라. **사람의 아들**을 대담히 따르고 하늘나라 복음을 믿은, 미움받던 세리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형제들에게 — 아니 온 세상에 — 보이라. 바로 처음부터, **레위**야, 내가 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을 잘 아는 까닭에, 너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그렇게 구별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늘나라의 친교에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 너의 여생을 바치라.”

181:2.15 (1958.2) 다음에 **예수**는 **야고보 세베대**에게 걸어갔고, 주가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야고보**야, 너와 네 아우가 언젠가 내게 와서 하늘나라에서 우대받는 명예를 구하였고 내가 그러한 명예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 너희에게 일렸을 때, 나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는가 물었고, 너희 둘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느니라. 그때는 네가 할 수 없었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없다면, 너는 바야흐로 겪을 체험으로 그러한 봉사를 위하여 곧 준비되리라. 그런 행동으로 너희는 그때 형제들을 성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이미 너희를 충분히 용서하지 않았다면, 네가 내 잔을 마시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용서하리라. 너의 봉사가 길든 짧든, 인내하여 네 목숨을 건지라.^[173] 새 선생이 올 때, 그가 동정하는 자세를 가르치게 하고, 나를 철석같이 믿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함으로 생겨나는 관용, 사람을 헤아리는 바로 그 관용을 그 선생이 너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믿는 제자의 인간적 애정과 함께 신다운 위엄을 보여주는 데 네 일생을 바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리라. 너와 네 아우 **요한**은 다른 길로 가겠고, 너희 중 하나는 다른 자보다 훨씬 먼저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앓을 수도 있느니라. 참된 지혜는 용기만 아니라 신중(愼重)을 포함한다는 것을 배우고자 하면 너에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 너의 공격적 태도에 어울리게 너는 지혜를 배워야 하느니라. 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목숨을 버릴

최고의 순간이 오리라. 그러나 어떤 보통 경우에도, 네가 살아서 기쁜 소식을 계속 전파하도록 불신자의 진노를 달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여러 해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많이 설득하도록, 네 힘이 닿는 한, 땅에서 오래 살라.”

181:2.16 (1958.3) **야고보 세베대**에게 말씀을 마치고 나서, 주는 **안드레**가 앉은 식탁 끝까지 돌아 걸어가서, 충실하게 돕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안드레**야, 너는 하늘나라 대사들의 임시 우두머리로서 나를 충실하게 대표하였도다. 비록 네가 때때로 의심하였고 어떤 때에는 위험하게 두려움을 보였으나, 그래도 네 동료들을 다루는 데 너는 언제나 성실하게 공정하고, 뛰어나게 공평하였느니라. 너와 네 형제들을 하늘나라의 사자로서 세운 뒤로 계속, 너를 이 선택된 자들의 임시 우두머리로 지명한 것을 제외하고, 너희는 모든 집단 행정 사무를 자치(自治)해 왔느니라. 어떤 다른 현세의 문제도 나는 너의 결정을 지도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려고 행동하지 않았노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 너희의 모든 집단 결정을 지휘하는 데 지도자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내 우주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온 우주에서, 우리의 형제인 아들들은 어떤 영적 관계에도 개인으로서 대접받지만, 모든 집단 관계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분명한 지도자를 마련해 주느니라. 우리 나라는 질서 있는 나라요, 의지를 가진 둘 이상의 인간이 협동하여 활동하는 곳에 반드시 지도하는 권한이 마련되느니라.

181:2.17 (1959.1) “이제, **안드레**야, 내가 임명한 권한으로 네가 형제들의 우두머리이고, 네가 이렇게 나의 개인 대표로서 봉사했으매, 그리고 내가 바야흐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즉, 이 현세의 행정 사무에 관한 모든 책임에서 너를 해방하노라. 이제부터 영적

지도자로서 네 자격으로 네가 얻고, 따라서 네 형제들이 자유로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너는 형제들에게 어떤 권한도 행사하면 안 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 뒤에 저희가 분명한 법적 행위로 너에게 그러한 권한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터 너는 형제들에게 아무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러나 이 집단의 행정 우두머리 책임을 이렇게 면제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닥친 시련의 시절에, 든든한 사랑의 손으로 네 형제들을 한데 붙들어두도록 네 힘이 닿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도덕적 책임을 어떤 면에서도 덜지 않나니, 육체를 입고서 내가 떠나고 너희 가슴 속에서 살고 궁극에 너희를 모든 진실에 이르기까지 이끌 그러한 새 선생을 파송하는 사이에 시련의 시절이 틀림없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려고 준비하므로,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있을 때 시작되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행정 책임에서 너를 해방하고자 하노라. 이제부터 너희에 대하여,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나는 오로지 영적 권한만 행사하리라.

181:2.18 (1959.2) “네 형제들이 너를 조연자로 계속 두기를 바란다면, 내가 지시하노니, 어떤 세상 일과 영적 일에도, 복음을 믿는 성실한 여러 신자 집단 사이에서 너는 최선을 다하여 평화와 조화를 권장해야 하느니라.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 사랑의 실용적 모습을 촉진하는데 너의 여생을 바치라. 육체를 입은 내 형제들이 이 복음을 믿으려고 온전히 올 때 저희에게 친절하라. 서쪽에 **그리스**인들과 동쪽에 **아브너**에게, 사랑하고 치우치지 않게 헌신함을 나타내라. 이 내 사도들이, 땅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받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앞에 닥친 고달픈 시절에 너는 저희를 한데 붙들어야 하느니라. 그 극심한 시련을 겪는 시절에, 너희는 새 선생, **진실의 영**이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내가 몸소 함께 있지 않고서 너희는 이 복음 믿기를 배워야 하느니라.

그래서 **안드레아**,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 행하는 것이 너에게 맡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선생과 조연자가 되는 데 만족하여라. 땅에서 끝까지 네 일을 계속하여라. 그리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이 봉사를 네가 계속할지니, 왜냐하면 내가 이 무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여러 번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더냐?”

181:2.19 (1959.3) 다음에 **예수**는 **알패오** 쌍둥이에게 건너가서, 둘 사이에 서서 말했다: “귀여운 아이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세 형제 집단 중의 하나로다. 너희 여섯이 다 자기 혈육과 함께 평화롭게 일을 잘 했으되, 아무도 너희보다 낮게 하지 않았느니라. 어려운 시절이 바로 우리 앞에 닥쳤느니라. 너희와 형제들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나, 너희가 한때 하늘나라 일에 부름받았음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한동안, 아무런 군중을 다룰 일이 없을 터이나, 낙심하지 말라. 너희 일생의 일이 끝났을 때, 내가 높은 곳에서 너희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영화롭게 너희는 천사 무리,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높은 **아들**들의 군중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일러주리라. 평범한 수고의 질을 높이는 데 너희의 일생을 바치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데 한동안 일하라고 부름받은 뒤에, 얼마나 즐겁고 용감하게 필사 인간이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보여주라. 한동안, 겉으로 나타나는 하늘나라 사무에서 너희의 일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체험을 새롭게 깨우침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평범한 노동이나 세속의 수고와 같은 것이 없다는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너희는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나와 함께 일해 온 너희에게 모든 것이 신성하게 되었고,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봉사가 되기까지 하였느니라. 너희의 옛 사도 동료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소식을 들을 때, 저희와 함께 기뻐하고,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시중들고 섬기는 자로서 나날의 일을 계속하여라. 너희는 내내 나의 사도였고, 언제나 그러할지며, 다가오는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181:2.20 (1960.1) 다음에 **예수**는 **빌립**에게 건너갔고, 그는 선 채로 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 “**빌립**아, 너는 나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모두 대답하였고, 이제 가장 정직하지만 비영적 정신에서 일어난 그러한 너의 마지막 질문에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항상 너희에게 돌아왔는데, 너는 ‘주가 떠나가고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남겨 놓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혼잣말을 하고 있었느니라. 아, 너는 믿음이 작구나! 그래도 너는 거의 여러 형제만큼 믿음을 가졌고, **빌립**아, 너는 착한 집사였느니라. 너는 오직 몇 번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났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용했느니라. 너의 집사(執事) 직책은 거의 끝났고, 곧 네가 하라고 부름받은 일 — 이 하늘나라 복음 전하는 일 — 을 충만히 해야 하느니라. **빌립**아, 너는 언제나 사람들이 너에게 보여주기를 바랐고, 오래지 않아 너는 큰 일을 보게 될지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네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그러나 물질만 보는 눈으로도 네가 성실하였은즉, 너는 살아서 내 말이 이루어짐을 보리라. 다음에 네가 영적 시력을 축복받았을 때, 네 할 일을 하러 떠나가서, 물질 지성의 눈이 아니라 영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현실을 추구하도록 인류를 이끄는 운동에 네 목숨을 바치라. **빌립**아, 네가 땅에서 큰 사명을 가졌음을 기억할지니, 세상이 너의 성향과 똑같이 인생을 바라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음이라. 너는 큰 일을 해야 하고, 믿음 속에서 그 일을 마쳤을 때, 내 나라에서 너는 나에게 올지니라.

그리하면 눈이 구경하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필사자의 머리도 생각지 못한 것을 내가 크게 기뻐하며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동안에, 영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내가 새 선생의 영으로서, 영의 나라에서 너를 앞으로 이끌게 하여라. 내가 이 땅의 필사자로서 너와 함께 머물렀을 때 내가 이룰 수 없던 것을 이 방법으로 너를 위하여 많이 행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빌립**아, 언제나 기억하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181:2.21 (1960.2) 다음에 주는 **나다니엘**에게 건너갔다. **나다니엘**이 서자, **예수**는 앉으라고 명하고, 옆에 앉으면서 말했다: “**나다니엘**아, 네가 내 사도가 된 뒤로, 너는 편견 없이 살고 더욱 관대하게 되려고 연습하기를 배웠느니라. 그러나 네가 배울 것이 훨씬 많이 있느니라. 너의 한결같은 성실함에 동료들이 언제나 훈계를 받았으니, 너는 저희에게 축복이었도다. 내가 떠났을 때, 너의 솔직함은 새 형제와 옛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느니라. 좋은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듣는 사람의 지적(知的) 상태와 영적 성장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을 너는 배워야 하느니라. 분별과 함께할 때 성실은 하늘나라의 일에서 가장 쓸모가 있느니라.

181:2.22 (1961.1) “형제들과 함께 일하기를 배우고자 하면, 네가 더욱 영구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너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신이 떠나버린 것을 발견하면, 그 경우에 **하나님**을 아는 제자가 세상에서 혼자 있고 동료 신자들로부터 온통 고립되었을 때도 하늘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일생을 바치라. 나는 네가 끝까지 충실할 것을 알고, 하늘에 있는 내 나라에서 더 크게 봉사하는 일에 언젠가 너를 환영하리라.”

181:2.23 (1961.2) 다음에 **나다니엘**이 **예수**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처음에 이 하늘나라에 봉사하도록 나를 부르신 뒤로 늘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나이다. 나는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모르고, 내 형제들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하지만, 혼란스럽다고 고백하기를 꺼려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이까?” **예수**는 손을 **나다니엘**의 어깨에 얹으면서 말했다: “친구여, 나의 영적 가르침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면서 너희가 어리둥절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네가 **유대** 전통의 선입관으로 인하여 무척 장애를 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 복음을 풀이하려는 끈질긴 성향으로 너무 혼란에 빠졌음이라.

181:2.24 (1961.3) “입으로 전하는 말로 내가 너희에게 많이 가르쳤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내 일생을 살아왔노라. 너희의 머리를 깨우치고 너희 혼을 해방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였고, 너희는 내 가르침과 일생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모든 선생 중에 대선생의 손에서 — 실제 체험으로 — 얻으려고 이제 준비해야 하느니라. 이제 너희를 기다리는 이 모든 새 체험을 겪는 가운데, 나는 너희 앞에 가고, **진실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새 선생이 올 때, 땅에서 너희 여생을 통하여 내내, 그리고 영원한 시대에 계속 너희의 훈련을 통하여, 그가 너희에게 드러내리라.”

181:2.25 (1961.4) 다음에, 주는 모두를 향하여 말했다: “복음의 온전한 뜻을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라. 너희는 유한한 필사 인간일 뿐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무한하고 신성하고 영원하니라. 참을성을 가지고 기운을 내라. **파라다이스**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체험을 너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얻을 영원한 시대가 너희 앞에 있느니라.”

181:2.26 (1961.5) 다음에 **예수**는 **토마스**에게 갔고, 그는 서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토마스**야, 너는 때때로 믿음이 모자랐지만, 의심하는 시절이 왔을 때, 용기가 모자란 적이 없었느니라. 그릇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생들이 너를 속이지 못할 것을 내가 잘 아노라. 내가 떠난 뒤에, 네 형제들은 새 가르침을 보는 너의 비평 방법을 더욱 고맙게 여기리라. 다가올 시절에 너희가 모두 땅 끝까지 흩어질 때, 네가 여전히 나의 대사(大使)임을 기억하라. 자기 생애에서 영의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영에게서 태어난 남녀들의 체험 속에서 살아 있는 진실이 일하느니라. 그러한 생생한 진실이 펼쳐지는 것을 만났을 때, 사람의 비평하는 물질적 정신이 어떻게 지적으로 의심하는 타성(惰性)을 이길 수 있는가 보여주는 큰 일에 너의 일생을 바쳐라. **토마스**야, 네가 우리와 함께 하여 나는 기쁘도다. 잠시 어리둥절한 때가 지난 뒤에, 너는 하늘나라의 수고를 계속하리라. 너의 의심은 형제들을 당황하게 했어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느니라. 나는 너를 신임하고, 땅에서 가장 먼 구석까지도 네 앞에 가리라.”

181:2.27 (1962.1) 다음에 주는 **시몬 베드로**에게 갔다. **예수**가 말씀하는 동안에 그는 서 있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하늘나라 복음을 대중에게 선포하는 데 네 일생을 바칠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가까이 여러 해 동안 지냈어도, 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도록 많이 돕지 못하여 걱정이 되는구나. 무슨 체험을 거쳐야 네가 입 조심하기를 배우겠느냐? 네가 생각 없이 입을 열어, 너의 주제넘은 자신감 때문에, 너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너는 이 약점을 극복하지 않으면 너 자신에게 더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운명을 가졌느니라. 이 약점이 있는데도 형제들이 너를 사랑함을 네가 알고, 또한 이 결점이 너에 대한 나의 애정을 조금도 다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런 결점은 너의 쓸모를 줄이고, 그침 없이 너에게 문제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나 바로 오늘 밤에 겪을 체험으로부터, 의심할 여지없이 너는 큰 도움을 받으리라. **시몬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제 이르는 것을 마찬가지로, 여기 모인 네 형제 모두에게 이르노라: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 때문에 실수하는 큰 위험에 빠지리라. 기록되었으되, ‘목자가 얻어맞고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없을 때, 나에게 닥치는 일 때문에 너희 가운데 더러는 의심에 굴복하고 넘어질 큰 위험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잠시 동안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고,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181:2.28 (1962.2) 그때 **베드로**가 손을 **예수**의 어깨에 얹고 말했다: “내 형제 모두가 당신 때문에 의심에 빠져도 상관없이, 당신께 약속하오니,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고, 필요하다면 당신을 위하여 죽으리이다.”

181:2.29 (1962.3) **베드로**가 주 앞에 섰고, 모두가 뜨거운 감정과 그를 향한 진정한 사랑에 넘쳐서 부르르 떨자, **예수**는 그의 젖은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서너 번 부인하리라. 이처럼 나와 평화로운 관계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너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통해서 배우리라. 네가 이 필요한 교훈을 정말로 배운 뒤에, 너는 형제들에게 힘을 주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바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느니라. 하지만 너는 감옥에 갇히고, 아마도, 나를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랑으로 봉사하는, 최상의 값을 치를 수도 있느니라.

181:2.30 (1962.4) “그러나 내 약속을 기억하여라: 내가 살아난 뒤에,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한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르리라. 너희가 지금 곧 거쳐야 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밤에도 **아버지**가 너희 하나하나에게 힘주시기를 내가 간구하리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부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181:2.31 (1962.5) 다음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에 있는 캠프를 향하여 떠났다.

[173]: 181:2.15 누가 복음 21:19 (KJV).
